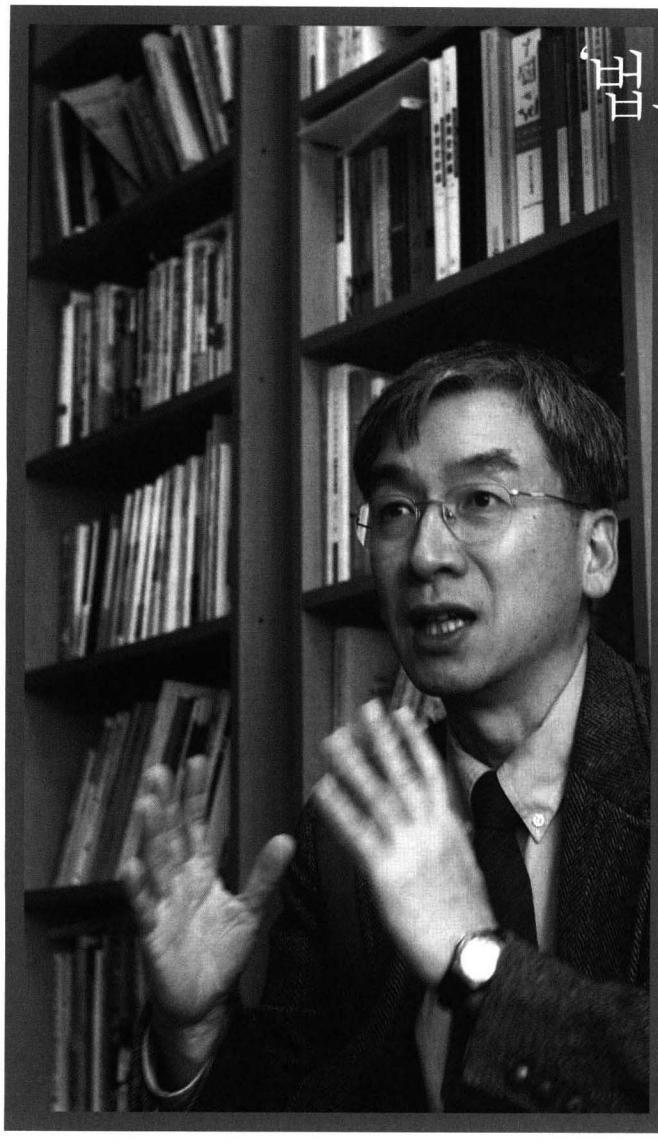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으로 '운동성' 회복

온라인 동아시아판 〈창작과 비평〉, 세교연구소 설립 등 변화 모색

올 1월로 창간 40주년을 맞은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 오랜 세월동안 한국 문단과 사회에 진보 담론을 형성해온 '창비'에게서 최근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읽히고 있다. 일단 문학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새로 영입한 편집위원의 연령층이 젊어졌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이장욱 위원은 30대, 진정석 문학평론가는 40대이다. 또, 3월부터는 온라인 '창비' 일본판을 선보이고 차후 중국어판도 시범 가동해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 모든 변화의 한 복판엔 1월에 취임한 백영서 신임 주간(연세대 사학과 교수)이 있다. 그는 '창비'에 주간제가 도입된 1996년 이래 10년 만에 두 번째 주간으로 선임돼 '창비'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창비', '사회 운동의 현장이자 배움터…변화의 구심점'

백 주간이 '창비'와 맺은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1978년 '창비' 최초의 상근 편집기자로 입사해 편집위원과 부주간을 거치면서 청년기와 중년기의 뜨거운 세월을 '창비'와 함께 했다.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하다 제적됐던 백 주간에게 '창비'는 직장이라기보단 사회 운동의 현장이었고, 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배움터였다. 그에겐 '창비'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주는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 80년, 복학생 시절 학교 벽에 도배되어 있던 대자보에는 당시 제기되던 '창비' 담론의 핵심 내용들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었다.

"담론이 실천으로 바뀌는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운동이구나, '창비'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자부심과 애정이 솟구쳤죠."

백 주간은 이론과 현장을 이어주는 그 힘이 바로 "'창비'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처음 편집 주간 선임 소식을 들었을 때 백 주간은 진심으로 고사했다. '창비' 가족으로서 평생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간은 좀 더 젊은 문인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비'가 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수락하게 되었다. 문인이었던 최원식 전 주간에 비해 비전공자로서의 약점은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도 들었다.

"문단 내에서 어떤 권위나 위계 질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하자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활동 영역 동아시아로 확대, 지식인 네트워크 구축할 것

중국 현대사를 전공한 백 주간은 지난 십 여년간 동아시아 담론 연구를 주도한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꾸준한 학술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적 관점을 가지고 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 주간은 "'창비'의 담론을 국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그 영역을 넓혀서 교류의 장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90년대 초 백 주간이 동아시아학을 제기할 때만 해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동아시아학이 소위 "학문적 유행이자 시대적 요청"사항이 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백 주간은 "지금은 '어떤 동아시아인가'라는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개념 설정이 관건"이며, "정치, 학계 등 각 주체에 따라 서로 주창하는 '동아시아'의 내용이 다를 정도로 동아시아학이 다양한 분야의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동아시아학은 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지식인 사회의 담론이었고, 아직까지도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학문과 방법론을 가진 담론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정착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고, 더 나아가 일반 대중, 시민들의 정서와 생활 문화에 뿌리내리는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백 주간은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 중국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동안 견제를 덜 받는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주체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동남아와 서남아를 견인할 수 있는 중견 국가로서 한국은 중심과 주변을 잇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백 주간은 80년대에 강렬했던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로,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로서 동아시아학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시대와 사회가 변했는데 '창비'의 담론과 사회적 의제들이 80년대에 주창한 민족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창비'가 풀어야 할 숙제다.

"개인적으로는 '창비'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개방적인, 열린 민족 문학을 지향하며 북한 문학, 해외 동포들까지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 문학을 추구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탈민족주의담론으로 인해 '창비'의 지향성이 고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국수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가 주는 원동력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40주년 맞은 '창비'의 각오, "운동성을 회복하자"

지난 40년 동안 "'창비'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적 주류가 된 것"이 백 주간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다. 80년대에는 비주류 세력으로, 저항 문화로서 활약했다면 이제는 제도권에 안착해 회사 규모가 커졌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창비'가 문화 권력이 되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커진 힘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성에 젖거나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겠죠."

백 주간은, 40주년을 맞은 올해 '창비'의 새로운 각오가 "운동성을 회복하자"임을 강조했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즉 '옛 것을 본받으면서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추구해 새롭게 거듭나자는 뜻이죠. 우리 시대의 과제와 요구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게 '창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책을 안 읽는, 어려운 담론을 싫어하는 젊은 세대를 설득해야 하는 시대를 돌파하는 '창비'의 대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롭고 논쟁적인 글쓰기를 하자'는 것이다.

"주장이 명료하고 현장과 밀접한, 학문적인 언어로 현실을 설명하는 어려운 글이 아니라, 현실에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분명한 주제를 가진 글을 쓰자"는 게 백 주간의 설명이다. 먼저, 편집진부터 모델이 되어 '창비'식 비평과 글쓰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창비'의 상임 편집위원은 기존의 백낙청(편집인, 영문학 · 철학), 백영서(중국현대사), 한기욱(영문학), 유재건(서양미술), 이남주(중국정치) 외에 새로 선임된 이장욱 시인, 진정석 문학평론가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 주간은 이 '노 · 장 · 청의 결합'이 '창비'의 강점이라고 했다.

"'창비'는 다양한 세대의 인문과학자, 사회과학자, 문인들이 어우러져 있어 서로 자극을 주고 학문간 접점을 찾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백 주간이 밝히는 올해 '창비'의 핵심 과제는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진보'란 무엇인가"이다. 남북을 포함해 동아시아적 상황에서 참된 진보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내는 '창비' 온라인 동아시아판의 판권을 개방해 일본과 중국의 편집자, 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편, 동아시아의 진보적 지식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에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통해 주요 잡지 책임자들을 모아서 '올바른 진보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최원식 전 '창비' 주간이 이사장을 맡은 '세교연구소'의 설립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잡지로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하는 담론을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2006년은 창비가 독자와 더불어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취재_ 김지희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